쌍계총림 쌍계사, 총림 해제 추진한다

쌍계사, 3월 16일 산중총회서 총림 해제 결의

성낙두 경남지사장

쌍계총림 쌍계사가 총림 해제를 추진한다.

쌍계사(주지 영담)는 3월 16일 경내 예술문화관 대강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교구본말사연합회회장 이암 스님, 유나 종성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혜원정사 원허 스님, 용화사 종묵 스님, 망운사 성각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등 대중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총림현안의 건, 고산대종사 유지봉대의 건, 쌍계사 재적 스님 수행보조금 지급의 건, 선차문화 축제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총림현안의 건은 총회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산중총회의장 영담 스님은 "그동안 고산 문도회와 임회, 본말사연합회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이 모아졌지만 총림법에 따라 산중총회에서 결정하게 됐다"면서 "쌍계총림을 처음 지정할 때부터 고산 스님이 계시는 동안만 총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미 스님께도 말씀드린바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또 "방장스님이 입적하시고 나면 새 방장 추대를 두고 총림 내부에서 볼썽사나운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며 "저희 스님(고산 스님)과 같은 큰 어른이 계셨던 그러한 총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생각해서 오늘은 방장 추대보다는 총림을 해제하는 걸로 결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중총회 구성원 106명중 39명만 참석해 성원 미달에 대해선 "이미 고산문도회와 임회, 본말사사암연합회, 교구종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면서 "종단의 결정에 따라 추후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또 "총림이 해제되어도 선원, 율원, 염불원, 강원 등 총림에 버금가는 현재와 같은 역할은 계속 이어진다"며 "쌍계사는 선교율과 범패, 차의 5개 축을 바탕으로 계속 종합수행도량으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계사는 3월 16일 경내 예술문화관 대강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총림해제를 결의했다.

"총림 방장은 고산 스님 한 분 뿐"
종합수행도량으로 역할 유지 추진
총회 성원 부족으로 문제가 있어도
대다수 구성원들 해제로 의견 모아

고산대종사 유지 봉대의 건에 대해서는 문도회의와 교구종회, 본말사사암연합회로 봉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고산문도회 문장인 영담 스님에게 위임했다.

쌍계사 재적 스님들의 수행보조금 지급의 건과 관련해서는 말사의 부담이 없도록 고민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원로스님들의 수행관 신축을 결의했다.

선차문화 대축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5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하동 세계차문화엑스포에 쌍계사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차 시배지가 있는 쌍계사가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선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스리랑카와 몽골, 태국, 베트남 등 해외의 스님들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 "장애인 이동권 개선 적극 협력"

3월 15일 약자의 눈 · 전장연 예방
"특별교통수단 예산 확보 시급"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단체 '약자의눈'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박경석, 이하 전장연)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3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약자의눈 공동대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면담했다. 자리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도 함께했다.<아래 사진>

김민석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교통수단 충족과 운행률 보장 등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종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고자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지만 진행이 더딘 상태"라면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종교지도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도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라면서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를 탑승하다 사망한 이래로 22년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표는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표가 국민들에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진우 스님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미디어 매체를 통한 의견 전달 등을 통해 공감대를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약자를 위한 시설도 충족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은 선진국 문화의 척도인 만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상진·성오 스님 출마

3월 16일 선관위 자격심사 통과
상진 스님 1번, 성오 스님 2번


기호 1번 상진 스님


기호 2번 성오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진 · 성오 스님이 자격 심사를 통과해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이번 선거는 '양자 구도'로 진행된다. 안정기에 접어든 태고종에 발전 기틀을 다질 차기 행정수반은 누가 될지에 더욱더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산)는 3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서회의를 열고 상진 · 성오 스님을 상대로 3시간여에 걸쳐 심층 자격 심사를 한 뒤 두 후보자 모두 '후보자격 이상 없음' 결정을 내렸다. 자격 심사 후 진행된 기호 추첨에선 상진 스님이 후보 1번, 성오 스님이 2번을 배정 받았다.

'총무원장 선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태고종 재적승으로 55세 이상, 승랍 3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제적 이상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나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찰주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사찰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승려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타 종단 승려가 본종에 전종한 지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각종 선거에서 선거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종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적격' 판정을 받은 상진 · 성오 스님은 선거일인 4월 18일 전날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3~4월 중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별 종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호 1번 상진 스님은 1991년 철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교무부장, 동방불교대학 학장과 제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광덕사와 양주 청련사 주지를 지냈으며,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대구 구룡불교대학 강주를 역임했다.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1978년 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교육부장, 행정부원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중앙종회의원과 경기남부교구 종회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성은사 주지로 있다.

김주일 기자

진우 스님 "수행정진에 일념하라" 당부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3월 13일 범어사서 입재식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장을 방문해 구족계를 받는 스님들께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3월 13일 범어사에서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구족계를 수지하게 될 사미 · 식차마나니에게 "인과법을 잊지 말고 방하착하여 수행정진에 일념할 것"을 당부하는 법문을 설했다.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식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방문해 구족계를 받는 스님들께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즐거운 것도 싫은 것도 업이며 집착을 하면 윤회의 고통에 머물게 된다"며 "깨어 있으면서 내려놓음으로 수행 정진해야 한다. 항상 여여한 마음의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라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인연, 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 윤회의 굴레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식에는 사미 61명, 식차마나니 37명 총 98명이 참석해했다. 입재식은 개식에 이어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고불문, 법어, 총무원장 훈시, 청규시달, 죽비전달, 수계자 서원, 발원문,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법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입재식에서 "계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위상을 정의롭게 하고 스스로 정행의 몸가짐으로 오로지 계를 생명으로 하여, 번뇌와 무명의 장애를 끊는 수행정진을 하되 여구두연의 각고정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호계도감 보운 스님(범어사 주지)은 "수계대법요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계를 받는 제자들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 없이 용맹 정진할 것을 발원하오니 증명하여 주옵소서"라며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로 늘어나고 법의 수레바퀴가 쉼 없이 굴러다함이 없는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참석한 사미와 식차마나니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지극한 정성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교화하고 해탈의 진리를 얻게 하겠나이다"고 서원하며 "이 몸이 부처님의 몸에 이르도록 청정한 계율을 범하지 않으리니 제불보살님께서는 증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서원했다.

수계산림은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수계산림을 원만히 수료하면 참석한 사미와 식차마나니는 구족계를 받고 종단의 정식 스님(비구, 비구니)로 거듭나게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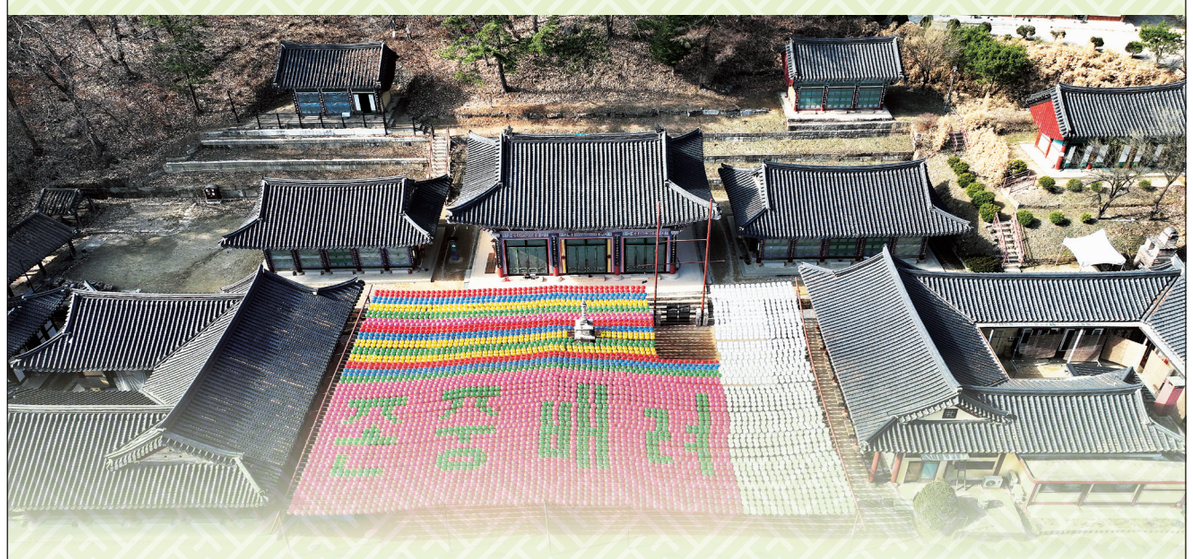


주 지 무 관
신도회장 여 원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 051)727-2393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사부대중일동